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분석*

이 수 진[†]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가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청소년 3,027명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9월, 11월, 3차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 등 6개 요인과 인구학적 문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의 서로 다른 세 시점에서 평균점수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은 점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변화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반면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 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점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므로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한 이론모형을 탐색해 본 결과 초기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및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가 개인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유의미하게 예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과 상담을 위한 제안과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충동성,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우울/불안

* 이 논문은 2008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61-1

E-mail : sjlee@kookmin.ac.kr

서론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경쟁에 따른 심리적 압박, 그리고 놀이문화의 부재에 따른 현실 상황에서 인터넷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몰입하게 된다(황상민, 한규석, 1999).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우울증과 외로움이 높아지고, 충동성이 강해지는 등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게 되며, 온라인 상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폭력 및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은정, 2005; 남영옥, 2005; 이혜경, 2002).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상의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어지며, 인터넷 이용자 및 주위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를 '인터넷중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청택 등, 2002; 박승민, 김창대, 2005). 과도한 인터넷사용이 청소년 본인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인터넷중독을 청소년 문제행동의 한 유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Sprinthall & Collins, 1995; 임영식 재인용).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급격한 인지적, 신체적 발달과 사회적 역할이나 기대가 달라지면서 유발되는 긴장과 갈등을 주변 환경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처한 상황적, 환경적 맥락 속에서 문제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파악

하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지승희 등, 2002; 윤혜미, 2005).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소지가 높은 특성을 '위험요소'라고 정의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감정통제의 어려움 등이 포함될 수 있고(Compas, Hinden & Gerhardt, 1995), 가족적인 차원에서는 가정불화 및 구조적 결손, 그리고 역기능적 부모 역할 등이 포함되며(Carr, 1999), 또래차원에서는 문제 있는 친구 및 동료들과 어울리는 행위가 포함된다(유선경, 1999; 지승희 등, 2002 재인용).

인터넷중독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설명력을 보여주는 위험요소가 개인의 충동성 혹은 낮은 통제력이다(이경남, 2000; 이선경, 2001, 이정운, 2005). 우울과 불안수준도 인터넷중독과 관련성이 높는데, 현실에서의 우울이나 불안을 회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인터넷사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보상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사용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된다(정선태, 2001; 장재홍, 유정이 등, 2003; 오원옥, 2007).

또한 인터넷중독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 중의 하나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양육태도이다.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이계원, 2001), 거부적, 적대적 양육태도(윤지영, 2001; 김지혁, 2002), 혹은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전성일과 류정환 등, 2000),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시형 등, 2000). 홍세희 등(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인터넷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혹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주위

친구들의 태도 및 사용정도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권재환, 이은희, 2005), 이는 발달 기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또래 집단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은 청소년 본인과 부모(가족), 또래집단 등으로 구성된 환경과의 독특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청소년의 개인적인 차원으로부터 사회적인 차원에 이르는 관련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개인, 가족, 사회 각각의 단편적인 차원에서 변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또한 변인간의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일회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순간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 반복적으로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인(충동성, 우울/불안, 개인지각)과 사회적변인(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주위친구)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상담을 위한 개입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과도한 인터넷사용과 관련 있는 개인적인 특성 중 하나는 충동성이다. 충동성이란 위험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특성

으로 충동성이 높으면 미래의 좋은 결과를 무시하게 되고 현재 상태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게 된다. 학자에 따라서 인터넷중독은 기존의 물질중독(예를 들어, 알코올중독, 코카인중독)과 달리 인터넷 사용하는 행위 그 자체를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충동조절장애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천영재, 2002). 김청택 등(2002)이 제시한 인터넷중독 과정모형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어기게 되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신집중을 못하는 등 사소한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터넷사용으로 발생하는 득과 실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의 인터넷사용을 조절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충동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성격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용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터넷사용시간조절에 실패하여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비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집단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떨어지며,(이경남, 2000; 이소영, 2000; 권희경, 권정혜, 2002; 이정운, 2005), 반대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점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종원, 조옥위, 2002; 김교정, 서상현, 2006).

인터넷중독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우울 및 불안이 있다. 우울/불안이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 우울한 사람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자기 의심 및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자

신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회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접촉할 수 있으므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보상으로 인식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강화되고 인터넷중독에 이르기기도 한다(장재홍 등, 2003; 오원욱, 2007).

인간의 발달 및 적응에 있어 부모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홍세희 등, 2007).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김교현, 2001; 장재홍, 2004), 부모로부터 심리적 거부나 무관심에 의한 좌절 혹은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으며(장재홍, 2004), 부모가 권위적이거나 적대적이고 거부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계원, 2001; 윤지영, 2001; 김지혁, 2002; 조아미, 방희정, 2002).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정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청소년이 98%를 넘는 현실에서(정보통신부, 2007), 인터넷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과 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이숙현, 민혜영, 1992). 홍세희 등(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중독과 부모-자녀 의사소통과의 상호관계성에 있어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을 높이

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과 같은 다른 심리적인 변인에 영향을 주어 인터넷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진 등, 2005).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감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쉽게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된다(정영숙 등, 2003; 장재홍, 2004; 이수진 등,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이해하는데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교우)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청소년시기에 부모와의 접촉시간이 줄고, 또래와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래는 중요한 준거집단으로 작용하게 된다(Larson & Richards, 1991).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문제행동을 가진 친구의 존재가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종원, 조옥귀, 2002; 박성미, 2007). 이러한 현상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자신과 유사한 문제행동을 가진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한 문제행동을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 직접, 간접적으로 문제행동을 학습하게 되어 본인이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된다는 ‘차별접촉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김성이, 1996).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친구의 영향력이 개인의 인터넷중독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즉 친구관계에서 인터넷 비중이 높은 경우(윤영민, 2000),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만철, 오익수, 2003; 이경남, 2003; 이희경, 2003; 권재환, 이은희, 2005).

개인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본인의 자각이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사회-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기여편파(Self-serving bias)’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방어적으로 귀인 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자기기여편파란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보편성은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바람직한 행동은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실제 흡연인구보다 더 많게 추정하여 문제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한규석, 1995).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개인적 우화’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며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 치거나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을 쉽게 저지룰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성이, 1996; 임영석, 2003). 따라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중독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청소년 자신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주위의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자기기여편파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인터넷중독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거나 인터넷을 조절하여 사용해야겠다는 동기가 감소하여 인터넷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1) 개인 정서적 변인: 충동성, 우울/불안, 2) 가족적 변

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 3) 또래 변인: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4) 인지적 변인: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한 본인 지각과 인터넷 중독성향을 세 차례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된 변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를 검토하였고, 또한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가정하고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모형 구성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이 개인의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가장 선행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으며, 부모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양식이 개인의 충동성과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충동성이란 개인의 타고난 특성이지만 사회화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충동성에 따른 사고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부모-자녀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은 인터넷 중독성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개인의 지각 및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차별접촉이론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주위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친구가 많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변인의 안정성 여부.

1) 청소년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도 변

함없이 안정적인가?

2) 청소년의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한 본인의 지각 및 인터넷 중독 성향은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인가?

연구문제 2. 변인과 인터넷 중독성향과의 관계.

청소년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본인지각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생이며, 전체 3,027명으로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1,774명으로 전체의 58.6%이고, 여학생은 1,246명으로 전체의 41.2%,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7명으로 전체의 0.2%였다. 학년별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년생이 1,889명으로 전체의 62.4%였으며, 중학교 1년생이 1,045명으로 전체의 34.5%,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93명으로 전체의 3.1%였다.

절차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 신청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집단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 조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학급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004년 6월 1차 설문을 실시하였고, 9월에 2차, 11월에 3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 8개교, 일반 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3개교 등 총 14개교 3,027명이었다.

측정도구

인터넷중독진단척도(K-척도)

인터넷중독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청택 등(2002)이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게임, 채팅 등 인터넷사용 전반에 대하여 40문항,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의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사용한다’, ‘인터넷을 하다가 그만 두면 또 하고 싶다’ 등의 내성, ‘인터넷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인터넷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인터넷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등의 금단 그리고 ‘인터넷사용으로 인하여 생활이 불규칙해졌다’,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여부에 따라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게 된다. 2002년도 저자들이 보고한 척도의 신뢰도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각각 .96이었으며, 사회적지지척도, 충동성척도, 외로움 척도를 이용한 타당성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6이었다.

청소년용 자기행동 평정척도(K-YSR): 우울/불안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이며,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에 의해 한국판으로 변안 발간되었다. 만 12세-17세에 해당되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상으로 추출된 119개의 문항을 0, 1, 2 식의 3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 문제행동척도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내현적 문제행동과 외현적 문제행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하위 요인 중 우울/불안척도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 한다’, ‘나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2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충동성 척도

충동성이라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ratt (1969)이 제작한 BISII 충동성 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를 이현수(1992)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ISII 충동성 척도는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으로 서로 다른 하위 충동성 특징을 측정하는 성격검사로써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현수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는 인지충동성 .73, 운동충동성 .70, 무계획충동성 .50이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척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하였으며, 민혜영(1990)이 변안하였다. 이 척도는 전체 20 문항으로 각각 10문항씩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개방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부모-자식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두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인터넷중독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긍정적인 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민혜영의 연구에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α 계수는 .86,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의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이시형 등(2001)의 연구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20문항의 α 계수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3이었다.

인터넷 과다사용의 본인지각

청소년 본인의 인터넷사용 및 과다사용여부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1= 전혀 아니다”에서 “4= 정말 그렇다”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인터넷사용이 과도하다’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의 수

인터넷사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문제가 있는 친구가 몇 명쯤이나 될까요?”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인원의 수를 Likert방식의 4점 척도로 “1= 0-1명”, “2= 3-5명”, “3= 6-10명”, “4= 11-20명”, “5= 20명 이상”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에 인터넷을 과다사용으로 문제를 경험하는 친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방법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의 수, 인터넷 과다사용에 관한 본인지각 및 인터넷 중독성향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인의 변화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적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LGM)을 이용하면 어떤 변인에서의 변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가 유의미한지 검증할 수 있다(이수진 등, 2005). 예를 들어, 변화함수가 선형(linear)이라면, 절편과 기울기에 있어서 개인차의 의미는 초기치(initial status)와 변화율(change rate)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변인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이 된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단순히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수진 등, 2005).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omparative Fit Index(CFI)와 RMSEA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가 .90이상이고, RMSEA가 .08이하이면 타당한 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홍세희, 2004).

결 과

변인별 시간추이에 따른 변화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의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의 수, 인터넷 중독성향 등의 변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1, 2, 3차 조사에서 측정한 변수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각 조사마다 변인 각각 문항수별 평균값을 응답자별로 구하였다.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들은 역채점을 통하여 척도 점수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각 요인별 척도에 대한 응답자별 평균값을 구한 이유는 응답자들 중 모든 문항에 답하지 않고 몇 개의 문항은 결측치(missing)으로 남긴 응답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 조사 시점에서 구한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변인별 분석모형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에 있어서 변화 사이

표 1.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M	SD	M	SD	M	SD
부모-자녀의사소통양식	2.58	.35	2.27	.46	2.36	.46
충동성	2.29	.33	2.22	.37	2.16	.44
우울/불안	.46	.36	.56	.46	.68	.41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2.21	.80	2.16	.77	2.11	.73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3.08	1.5	2.86	1.5	2.79	1.46
인터넷 중독경향	1.98	.48	1.88	.50	1.84	.54

의 관련성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각 변인에 대해 적절한 변화함수를 사용한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였다. 표 1에 제시된 세 시점의 평균 변화패턴을 바탕으로 각 변인에 대해 무 변화모형 또는 선형 변화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세 시점에서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증가-감소 또는 감소-증가의 형태를 보이는 변수의 경우에는 무변화(no change) 모형을 적용하였다. 무변화 모형에서는 체계적인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매 시점에서 발생한 변화는 무선오차(random error)로 간주된다(이수진 등, 2005). 각 시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검토한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변화 모형을 적용하였고,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및 인터넷 중독성향은 체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으므로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무변화모형: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세 시점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변수를

이용하여 무변화 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χ^2 는 476.4 (df=4) 이고, CFI가 0.97이고 RMSEA가 .03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변수가 조사된 세 시점 사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변화 모형이므로 각 시점의 변수와 초기치 잠재변수 사이의 계수는 1로 고정되었다. 이것은 초기치가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이다(이수진 등, 2005). 초기치 변수의 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변인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는 유의미할 정도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모형: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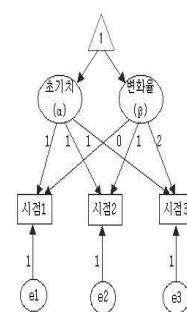


그림 1. 무변화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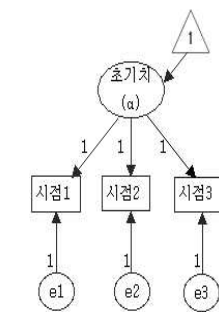


그림 2. 선형변화 모형

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시점에서의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 변수를 이용하여 선형변화 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CFI와 RMSEA가 모두 적합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각의 변인이 세 시점 사이에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우울과 불안을 제외한 각 요인의 기울기(변화율)의 평균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각 요인은 세 시점 사이에 선형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

다사용 친구의 수, 인터넷 중독성향 변수에 대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각 변인의 초기치와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는 유의미할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의 경우 초기치의 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의 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변수의 공변량은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초기치와 변화율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모형은 선형모형이므로 각 시점의 변수와 초기치 잠재변수 사이의 계수는 1로 고정되고, 각 시점의 변수와 변화율 잠재변수 사이의 계수는 0, 1, 2로 각각 고정되었다.

표 2 충동성, 비행, 인터넷중독성향 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RMSEA
충동성	0.031 (1)	1.00	0.015
우울/불안	8.29 (1)	0.98	0.049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17.44 (1)	0.98	0.074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7.26 (1)	0.98	0.046
인터넷 중독성향	9.861 (1)	0.99	0.035

표 3 선형모형에 대한 결과

	평균		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충동성	2.293	-0.069	0.035	0.014*
우울/불안	.459	0.007	0.062	0.011*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2.206	-0.015	0.294	0.003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3.076	-0.029	0.540	0.160*
인터넷 중독성향	1.976	-0.074	0.149	0.018*

* $p < .05$

이론모형 개발

앞서 얻어진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6개 변수(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충동성, 우울/불안,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인터넷 중독성향) 사이에 관계를 설정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그림 3과 같이 개발하였다. 그림 3에서는 편의상 각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고 무변화 변인(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에 대해서는 초기상태만 나타내고 선형변화 변인들에 대해서는 초기상태(절편)와 변화율(기울기)만을 포함시켰다. 또한 오차변수들도 생략하였다. 이 그림에서는 각 변인들의 변화에 있어서의 관련성을 나타낸 구조모형만을 제시한 것이다. 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와 같다. CFI는 .907이고, RMSEA는 0.058로 모형의 적합도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제시한 모형을 분석한 결과 유의도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해당 계수와 추정된 표준화된 계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충동성 초기 수준이 높았으며, 우울/불안의 초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 초기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충동성의 수준은 측정된 세 시점 사이에서 선형으로 감소하는데,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이 부정적일수록 충동성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성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표 4.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RMSEA
이론모형	1112.78(98)	.907	0.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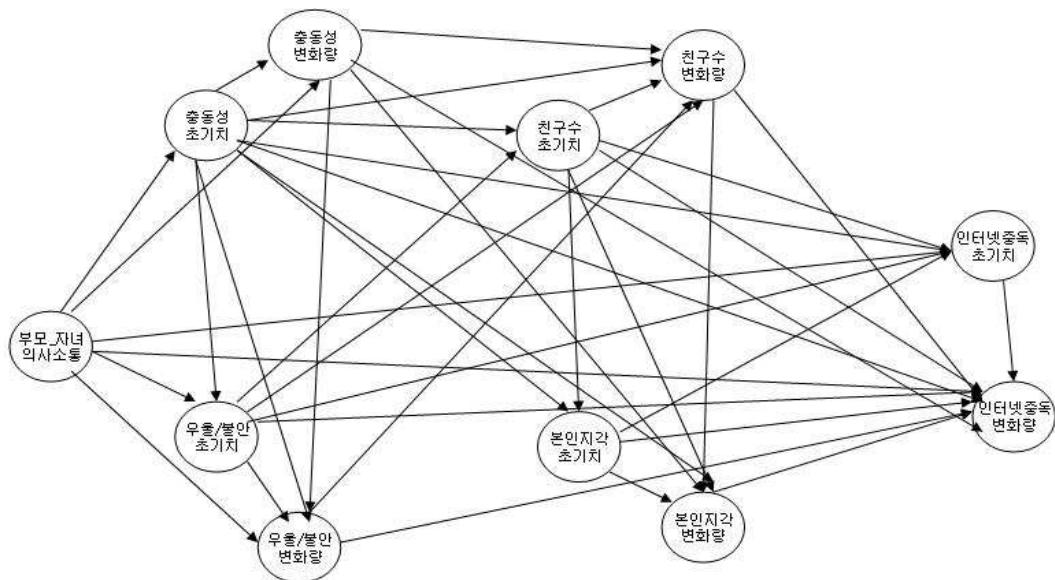


그림 3.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이론모형

표 5. 이론 모형에서 유의한 추정 계수

	β
충동성 초기치 <-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53
충동성 변화량 <-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1.23
우울/불안 초기치 <-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2.32
우울/불안 변화량 <-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1.03
인터넷 중독성향 초기치<-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2.37
우울/불안 초기치 <- 충동성 초기치	.32
인터넷 중독성향 초기치 <- 충동성 초기치	1.89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 충동성 초기치	.11
우울/불안 변화량 <-충동성 변화량	1.27
인터넷 중독성향 변화량 - 충동성 변화량	.75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초기치	.33
인터넷 중독성향 초기치 <-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초기치	.19
인터넷 중독성향초기치 <-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초기치	.12
인터넷 중독성향 변화량 <-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변화량	1.12

 $p < .05$

초기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시점 사이에 충동성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감소하고, 반대로 충동성 수준이 증가하면 인터넷 중독성향이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충동성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초기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 시점 사이에 충동성의 수준이 감소할수록, 우울/불안의 수준도 감소하고 반대로 충동성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불안의 수준도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충동성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표 6.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직접, 간접효과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	.590	.448	.142
충동성	1.102	1.035	.067
우울/불안	.061	.050	.011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192	.174	.018
인터넷 과다사용 본인지각	.120	.120	.000

사용하고 있다는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본인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각 수준이 초기에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의 초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성향은 세 시점 사이에 선형으로 감소하는데, 본인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각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은 세 시점 사이에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에서는 각 변인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미치는 직접, 간접 효과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관계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인들이 안정적인가

를 확인해본 결과, 부모-자녀 의사소통양식은 측정된 세 시점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 인터넷 과다사용의 본인지각,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 및 인터넷 중독성향의 점수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다소 감소하며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불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자녀간 부정적인 의사소통양식은 인터넷 중독성향을 증가시키고,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충동성 수준이 높아지며, 높은 충동성은 인터넷 중독성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수진 등(2005)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불안 수준은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과 우울/불안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충동성의 초기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초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동성의 수준이 감소하면 우울/불안의 수준도 감소하고, 충동성의 수준이 증가하면 우울/불안의 수준도 함께 증가하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외부 세계에 대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인터넷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윤영민, 2000; 김연화, 정영숙, 2005; 홍세희, 2007).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 및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부모를 학교나 청소년상담기관에 소집하여 교육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하는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모와 자녀의 발달기적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이해시키고, 의사소통 방식에 있어 비록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선 부모의 말이나 요구에 경청하는 태도를 갖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높으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활동에 몰입하여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다른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중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재미와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간 관리 및 자기감찰방법이나 지시방법을 강화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다(정선태, 2001).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본인의 자각수준이 높고, 주위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친구의 수가 많은 경우 인터넷 중독성향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 초기 인

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본인의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측정하는 세 시점에서 인터넷 중독성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인의 지각이 감소함에 따라 인터넷 중독성향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이 결과는 청소년이 본인의 인터넷의 사용 정도 및 결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독 연구에서 중독성향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신의 중독성향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한다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Young, 1998). 또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지각 수준이 높고 인터넷 중독성향도 높다는 사실인데, 이 결과는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문제행동이 유지된다는 차별접촉이론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사회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 본인이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각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음에 따라 본인의 인터넷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인터넷을 조절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동기 발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한규석, 1995).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때 중독성향을 보이는 학생과 그 학생의 또래를 포함시켜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조절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현 상태와 자기조절을 위한 목표행동에 대한 타당한 목표수립이 요구되므로, 인터넷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청소년 본인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해주고,

현실검증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이 요구된다(Carver & Sheier, 1990).

본 연구는 기존의 일회적인 횡단연구에 비해 동일한 대상에게 세 차례 반복적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안정성을 살펴보고, 변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과해석 시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반복측정을 통한 단기 종단연구라 하여도 자료조사의 전체 기간이나 조사 시점간의 간격이 짧았으며, 자료를 수집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자료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변인에 대하여 반복 측정된 자료는 희귀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료 분석은 의미 있는 일이며, 반복 측정되었기 때문에 변인들의 변화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분석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변인간의 상호관련성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된다. 둘째, 부모-자녀의사소통양식 및 다른 변인에 대한 자료가 제3자의 관찰 없이 자기보고식의 설문 응답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응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인터넷과다사용에 대한 본인지각 및 인터넷 과다사용 친구수를 조사함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특성(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도구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중독과 관련이 높은 학업성취, 학교 적응, 종합적인 교우관계 등의 변인들을 포함한 확장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인터넷중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만철, 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중독진단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권재환, 이은희 (2005). 판별분석을 이용한 게임중독 청소년들의 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1), 95-112.
- 권희경, 권정혜 (2002). 인터넷사용조절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화검증을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03-514.
- 김교정, 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변인의 경로모형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49-179.
- 김교현 (2002).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중독.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59-179.
- 김성이, 강지원, 구본용, 황순길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연화, 정영숙 (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0), 103-114.
- 김종원, 조옥위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477-498.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한국형 인터넷중독진단척도개발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김춘경 (1991). 비디오게임과 아동의 인성특성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 (2005).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음란물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비교. *청소년학연구*, 12(3), 363-388.
- 민혜영 (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승민, 김창대 (2005). 온라인게임 과다사용 청소년의 게임행동 조절유형 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999-1022.
- 송원영 (1999).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원옥 (2007).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1), 81-89.
- 유선경 (1999). 청소년 탈비행화 조력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 한국청소년상담원.
- 윤영민 (2000). 인터넷과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http://fromdoctor.com>).
- 윤지영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0). 아동의 자기통제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7(1), 99-120.
- 이경남 (2005).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99-118.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경 (2001). 청소년의 인터넷사용현황과 우울 및 자기통제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 (2000). 게임의 중독적 사용이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홍세희, 박중규 (2005).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개인적, 가족적 변인간의 연구: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 *교육심리연구*, 19(4), 1179-1197.
- 이숙현, 민혜영 (1992). 가족체계 유형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Yonsei Journal of Euthentics*, 6, 215-226.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과 자녀교육. *사회정신건강연구*.
- 이정윤 (2005). 인터넷중독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2(1), 43-61.
- 이희경 (2003). 청소년의 게임 이용요인과 개인사회적 요인이 게임몰입과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4), 355-380.
- 임영식 (2003).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문제행동. *한상철 등(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제1장(pp.16-40), 학지사.
- 한상철 등 (2003). *청소년 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 장재홍, 유정이, 김형수, 최한나 (2003). 중학생의 인터넷중독 및 인터넷 보상경험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 *상담학연구*, 4(2), 237-252.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사용요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장근영 (2003). 온라인 게임에서 발현되는 라이프스타일의 탐색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2003). *청소년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정선태 (2001). 자기통제훈련 프로그램이 인터넷중독 감소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권정혜 (2003). 자기도파성향과 대인관계가 중독적 게임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 조영란, 이화자 (2004).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 조아미, 방희정 (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1), 249-275.
- 천영재 (2004). 인터넷 이용동기 프로파일에 의한 인터넷중독자 분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 학지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인터넷중독실태조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황상민, 한규석 (1999). *사이버공간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김영사.
- 황상민 (2003). 인터넷게임중독 현황 및 발달과정과 심리적 개입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홍세희 (2004).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석, 김원정 (2007). 인터넷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Achenbach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 H. I. McCubbin, H. Barnes, A. Larsen & M. Muxen(Eds). *Family inventories*. (pp.77-81), Twin City,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rratt, A. T. & Patton, J. H. (1983). Impulsivity: Cognitive, behavioral, and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In M. S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pp.123-127). Hillsdale, N. J.: Erlbaum..
- Baumeister, B. F. (1993).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ew York, NY: Guilford.
- Carver, C. S. & Scheier, M. (1990).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ctions and emo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 of social behavior*(vol 2. pp.3-52). New York: Guilford.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 293.
- Furbey, L., & Beyth-Marom, R. (1990). *Risk taking in adolescence: A decision-making perspective*. Washington, DC.: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ce Development.
- Young, K (1998). *Caught in the net*. John Wiley & Sons.
- 원고접수일 : 2008. 6. 2.
게제결정일 : 2008. 7. 11.

The Study on the Interrelation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with Internet Addic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Sujin Lee

Kookmi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 qual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s of compulsivity, and of depressive moods/anxiety, the self-recognition about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number of friends suffering from excessive Internet use were related to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mong adolescents in Korea. A total of 3,027 secondary school students were assessed three times from June to November in 2004. The measures included the scales of Internet addiction diagnostic test, of the qual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of the levels of compulsivity, of depressive moods/anxiety, questions of the self-recognition about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number of friends suffering from excessive Internet use. Based on previous results, the researcher hypothesized the interrelationship employing Latent Growth Modeling(LGM) among those variabl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qual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were stable over time, while the levels of compulsivity, of depressive moods/anxiety, of the self-recognition about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number of friends suffering from excessive Internet use, and of internet addiction were slightly decreased during six months. In contrast, the level of depressive moods/anxiety were slightly increases in a meantime. Also, the results of multivariate LGM revealed that the qual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s of compulsivity, of depressive moods/anxiety, the self-recognition about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number of friends suffering from excessive Internet use contributed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s the researcher assumed, the quality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influenced directly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level of compulsivity appeared to mediate the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with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the initial level of self-recognition about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the number of friends suffering from excessive Internet use seemed to contribute to the initial level of internet addiction tendency.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dolescents, latent growth model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compulsivity, depressive moods/anxiety